

## 새정부 첫예산 국비확보 전쟁

광주시·전남도 등 사할  
민주 국회의원들 '뒷전'  
인사 이어 푸대접 걱정

새 정부 출범후 첫 예산인 '12조원 + 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편성에 이어 내년도 국비신청 마감에 임박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피말리는 예산 확보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호남이 텃밭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 자치단체와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 등은 뒷전인 채 5·4 전담대회에만 몰입하는 형국에서 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현안사업 및 국비 쟁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자칫 새정부의 호남 인사 푸대접에 이어 국비 푸대접까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북원 용역비 30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비 500억원 등이 오는 5월 정부의 추경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는 또 2014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박 대통령 7대 공약사업을 비롯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신규·계속사업 총 126건 3조 7655억원을 확정하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 중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오는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국회 예결위원 등을 만나 현안사업의 추경 반영을 적극 건의하기로 하는 등 국비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힘을 보태야 할 광주·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내 계파 간 갈등 속에 당 지도부를 뽑는 5·4전담대회에 집중하느라, 지역현안 챙기기에 뒷전인 모습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5·4전담과 보궐선거 때문에 현안사업(국비)을 챙기지 않으면서 예산 확보 싸움에서 타지역에 밀리는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



청산도의 노란 봄 지난 13일 완도군 청산도 당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봄별을 맞으며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밭을 거닐고 있다.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가 열린 이날 관광객들은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의 배경이 된 청산도의 봄 풍경을 만끽했다.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는 이달말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민주 당대표 김한길·이용섭·강기정 압축

신계륜 탈락...광주 출신 후보 단일화 여부 당권 경쟁 최대변수

'광주의 도전'이 '당권의 꽃'을 피울 것인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민주당합당 당 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한길 후보의 대세론에 맞서 강기정, 이용섭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당권 경쟁 구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2일 서울 삼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예비 경선에서 당권 도전

전에 나선 김한길, 이용섭, 강기정(기호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당내 민평련, 386, 친노 진영의 지원으로 예비 경선 통과가 유력시됐던 신계륜 후보의 탈락은 이변으로 꼽힌다.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어 바닥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윤희중, 우원식, 안민석, 신경민, 조정래, 양승조, 유성엽 후보 등 7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장흥·간성·영암이 지역구인 황주홍 후보는 비주류 주자들의 난립에 따라 예비 경선의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날 예비경선은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단(363명)이 당 대표 1인 1표, 최고위원 1인3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경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친노·주류 등 범주류와 비주류 간 대선

패배 책임론, 혁신방안 등을 둘러싼 세 대결 양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범주류 후보로 분류되는 이용섭, 강기정 후보의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강 후보와 얘기해보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강 후보는 "이제 막 예비경선이 끝난 상태여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김 후보는 범주류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반(反)혁신이자 계파 패권주의로 규정하고 "독한 혁신"과 당권인사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경기까지 16개 시·도를 방문하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 5월 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전담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임동욱기자 tuim@

## 朴대통령 "北 대화 나오면 공동발전"

존 케리 국무 "北과 대화 원해"...北은 비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북 관계와 관련,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 상호 신뢰를 쌓아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지만 북한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에 나오면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과거의 패턴에 선을 긋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생각되며,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 케리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을 통해서든 양자회담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북한과의 적극 대화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14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 남북간 대화가 당장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 ~ 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번지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2013년 광주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설명회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 광주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3. 4. 16(화) 15:00  
장소 | 광주CG센터 3층 영상시사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번지)  
내용 | CG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 등  
관련문의 | 콘텐츠산업팀 062)610-2431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GITCT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